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2호【루계 제2350호】

주체104(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음력 8월 21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고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을 잘 무어 옥류교와 대동교사이에 띄워놓으면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차례나 설계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 유보도에 서시여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바라보시며 칠색령롱한 무지개같다고,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정말 황홀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워놓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면서 건조실태와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의 수용능력이 대단한것만큼 원자재 보장대책을 잘 세워야 정상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남포조선소를 비롯한 선박공업부문과 조선인민군 제5141군부대의 일군들, 근로자들, 군인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길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종합봉사선을 우리 식으로 훌륭히 건조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수액공장이 현대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10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수액약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공장에서 수액약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현대적으로 확장된 수액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과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준 과업을 훌륭히 관철하였다고, 공장의 안팎을 흠잡을데가 없이 잘 꾸린것만 보아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깨끗한 정성을 담으려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잘 알수 있다고, 이렇게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믿음성이 담보된다고, 이 공장의 모범을 제약공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찾아가는 곳곳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성제약종합공장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70년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해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세상에 각이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당은 많아도 창건이래 70년간 인민을 위한 복무의 한길을 걸어오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확고히 담보해준 위대한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을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건설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분은 절세의 위인들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당의 위대성은 당을 이끄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당기발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어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고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이끌어주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속에 조선로동당은 모든 정책작성과 활동의 첫자리에 인민을 먼저 놓는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고 하나의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나라가 해방된 그 이듬해 발표해주신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 전화의 그 어려운 나날에 태여난 무상치료제, 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 등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주체60(1971)년 3월 15일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열리였을 때 있은 일이다.

회의에서는 동해안일대에 물고기랭동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당시 이 사업을 책임진 일군은 지금의 2배이상으로 랭동능력을 늘여야 하겠지만 세계적추세대로 물고기대가리와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랭동하면 지금보다 1.5배 늘여도 될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대가리도 없고 내장도 없는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일바에야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먹을수 있게 해야지 무엇때문에 대가리와 내장을 떼내고 먹이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겨울철에 잡는 물고기를 분한있게 먹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수십만t능력의 랭동창고를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자면 랭장능력을 어디에 얼마나 늘이겠는가 하는 계산이 나와야 한다고 하시며 대책안을 다시 만들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정치위원회는 휴회되고 다음날에 다시 열리게 되였으며 여기서 대규모랭동공장들을 많이 건설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게 되였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절대시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인민들은 온갖 국가적,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자주적인민의 행복한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변함없이 내세우고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오게 된데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을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로 삼도록 하시고 인민들의 진정한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이라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깃들어있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88만 3940여리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 애국자의 인민사랑의 로정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정책에 담으신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무료교육,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리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속에 대계도간석지, 현대적인 과수, 양어, 축산기지 등 수백여개의 중요대상들이 일떠서 로동당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공화국이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생산의 확고한 토대를 축성하고 온 나라에 CNC기계바다를 펼쳐놓을수 있은것도, 희천의 대규모룡림언제가 불과 700여일동안에 일떠서게 된것도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의 경륜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모시고 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조선로동당이 모든 활동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게 하시고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해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이끌고계신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병든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는 은정어린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런분이시다.

하기에 최근년간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큰물피해로 고생을 겪는 라선시수재민들의 정상이 가슴에 맺혀 당창건 70돐전으로 피해복구를 끝내도록 온갖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고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던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며 온 나라 인민은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한마음 우러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조선로동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 근로자들

《아버지당》과 《아들당》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주시였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인가 전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당 및 국가수반인 찌또는 담화석상에서 **김일성**주석께 자기 나라는 패권주의를 반대하여 《자치제사회주의》를 하고있는데 이런저런 압력과 시비중상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는데 대해 흉금을 터놓았다.

그의 말을 자초지종 다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충분히 리해한다고 하시며 찌또의 안타까운 마음을 눙쳐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오시였기에 찌또의 고백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난 찌또는 정말 지당한 말씀이라고, 조선이 오늘과 같이 멀리 전진할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이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였기때문이라고 공감을 금치 못해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자주성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다고, 어떤 나라 당들은 자기를 마치 《중앙》처럼 여기면서 다른 나라 당들에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이것은 자주성에 대한 유린이라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마디마디 힘을 주시며 세계에는 높고낮은 당이 없으며 《아버지당》과 《아들당》도 있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세계정치무대에서 나라마다 존재하며 활동하는 당들의 지위문제에 대한 명철하고도 심오한 그 말씀에 찌또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매개 나라 당들의 지위를 한마디로 규정해주는 아주 훌륭한 비유이라고, 나는 **김일성**주석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 당은 절대로 《아들당》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본사기자

《백승의 조선로동당》

로씨야신문들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들이 특집하였다.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울라지보스또크**》 제109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백승의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70년전에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당이다.

조선혁명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백승을 떨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령도의 전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

《브이보르》 9월 25일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을 모시고 《〈ㅌ.ㄷ〉와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ㅌ.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던 시기 **김일성**주석께서 결성하신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조직이다.

《ㅌ.ㄷ》가 내세운 자주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였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길이 빛나리라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지난날 외곡되고 복잡하게 얽혔던 력사문제들이 하나하나 바로잡아지고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있던 문화유산들이 발굴고증됨으로써 민족의 재보로 길이 빛나고있다.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밝혀지고 단군릉이 웅장하게 건립된 력사적사실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여운을 주고있다.

돌이켜보면 2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왔고 단군조선도 전설적이야기로만 전해졌다. 그것은 조상들이 단군을 우리 민족의 첫 건국시조로 신격화하면서 많은 전설을 만들어 낸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일제의 단군말살책동과 관련되여 있었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이 신화적인물이라는 기성관념에만 사로잡혀 단군릉을 발굴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던 력사학자들에게 단군연구를 심화시킬데 대한 여러차례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투철한 주체적인 력사관에 의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여 1993년 2월에는 단군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였다.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를 깊이 통찰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유골의 실체를 정확히 밝힐수 있도록 최신기술수단과 기술력량을 보장해주시여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 5011(±267)년전에 태여난 실재한 인물이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단군의 유골이 발굴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오랜 력사국이며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것과 우리 민족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는것을 립증할수 있게 되였다.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것은 우리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기뻐하시며 1993년 9월 팔순고령의 몸으로 강동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박산기슭에 개건할 단군릉터를 잡아주시고 단군릉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의 무덤답게 동명왕릉보다 더 높고 크게 돌로 계단식으로 쌓아야 한다고 하시며 개건할 릉의 규모와 형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1994년 7월 6일에는 겹쌓인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단군릉의 최종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빨리 건설하여 남조선과 해외동포들도 다 와보게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릉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시고 단군릉이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축물이 되게 시대성과 전통적인 민족풍습의 판례를 잘 살려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4년 10월 새로 훌륭히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국보인 단군릉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풍부히 하고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할데 대해 가르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릉이 단군조선의 기상에 어울리게 웅장하게 개건됨으로써 릉은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증시하며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성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면면히 이어지며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어린 평양민속공원건설에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이 창조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대로천력사박물관이 훌륭히 꾸려져 민족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길이 전할수 있게 되였다.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길이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숭고한 민족애와 조국애를 지니신 절세위인이 계시여 민족의 찬란한 력사, 문화와 전통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단상
대동강의 무지개

대동강에 무지개가 비꼈다. 새로 건조된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가 피여올린 아름다운 무지개이다.

며칠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유보도에 서시여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를 바라보시며 칠색령롱한 무지개같다고,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대동강의 무지개!

참으로 대동강에 두둥실 떠있는 《무지개》 호는 바라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무지개를 방불케 한다.

배가 아름다워서만일가. 그보다도 그 배에서 넘쳐날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의 향기가 대동강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피워올려서이다.

한번에 1 230여명의 손님들이 조선민족음식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료리들을 봉사받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건조된 《무지개》 호의 연건평은 1만 1 390여㎡, 길이는 120m, 너비는 25m, 배수량은 3 500t이다.

4층으로 된 이 배에는 민족료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식당, 야외갑판식당, 회전전망식당, 상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하기에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에는 옛날부터 무지개가 비꼈었다. 하지만 그 무지개가 비낀 대동강반에서는 백성들의 설음과 눈물이 가셔질줄 몰랐다.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유람을 즐긴것은 근로하는 인민이 아니라 돈있고 권세있는자들뿐이였다.

그러던 대동강이 언제부터 인민의 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되였던가. 로동당이 창건되고 인민을 위한 새 세상이 펼쳐지면서부터이다.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받들려 대동강을 가로지르며 인민을 위한 옥류교가 일떠서고 지금도 인민들이 즐겨찾으며 평양랭면의 진미에 취하는 옥류관이 솟아났으며 대동강의 흐름을 따라 미림갑문, 봉화갑문, 서해갑문 등이 일떠서 인민들은 영원히 큰물피해를 모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시대에 대동강은 더욱 살기 좋은 락원의 강으로 변모되였다. 최근 몇년어간에만도 얼마나 많은 현대적인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대동강반에 일떠섰는가. 릉라인민유원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대동강에 등실 떠있는 큰 돛배를 련상케 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을 눈앞에 둔 희한한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

이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가 떠다니게 되면 대동강의 풍치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다.

대동강에 비낀 무지개는 자연의 무지개가 아니라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이 꽃피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무지개이다. 자연의 무지개는 비꼈다 없어지지만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대동강의 무지개는 낮에도 밤에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칠색령롱한 빛을 뿌리며 행복의 대동강을 노래할것이다.

김 철 호

위성으로 보는 조선의 국력

위성을 쏘아올리려는것은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꿈이다. 1957년 이전 쏘련에서 최초의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개의 위성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그가운데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공화국이 1998년 8월에 성과적으로 쏴올린 《광명성-1》 호와 2009년 4월에 쏴올린 《광명성-2》 호, 2012년 12월에 쏴올린 《광명성-3》 호 2호기도 있다.

《광명성-1》 호와 《광명성-2》 호가 조선이 우주에 진출했음을 알리는 사변이였다면 《광명성-3》 호 2호기의 성공은 조선이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과시한 력사적쾌거였다. 한세기전만 해도 기껏해서 호미나 보습을 만들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식민지약소국이 오늘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세계의 상상봉에 일약 솟구쳐올랐다.

하기에 외국의 언론들도 《발전된 조선의 과학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다. 우주기술, 위성발사기술분야에서 조선은 세계의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하는 우주강국이다.》고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공화국의 발전된 인공지구위성기술은 무진막강한 조선의 국력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치고있다.

튼튼한 자립경제의 산물

세계가 경탄하는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제작과 발사의 특징은 그것이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진것이라는데 있다. 억대의 자본과 기술과 인원이 리윤을 찾아 강물처럼 흘러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유독 국경을 넘지 못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성기술이다. 위성을 만들어서 팔아주면 주었지 기술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위성기술만은 흐르지 않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세계화》를 떠들면서도 위성기술만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

왜? 우주기술은 우주에 자기의 령역을 넓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자기 위성을 띄운 나라들은 많다. 하지만 100% 국산화라는 말을 할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공화국에서 쏴올린 인공지구위성들은 설계로부터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으로 실현된 100% 국산화된것이다.

단 한시도 제재를 받지 않은적이 없고 단 한시도 위협을 받지 않은적이 없는 공화국이 자기의 두뇌와 힘으로 그 하나하나의 인공지구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사실이 세계에 주는 충격은 대단히 큰것이다. 제재도 가장 극악한 제재속에서, 도전도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전속에서 성공한 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인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 식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삶과 투쟁의 신조로 삼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실감하게 한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

인공지구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적인 결정체이다. 그것은 그 개발이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총집합으로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최첨단의 경지에 올라선 공화국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 호와 《광명성-3》 호 2호기의 발사과정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실 아무리 발전된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위성을 발사할때 발사시간과 위성의 자리길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공화국은 《광명성-2》 호를 발사하기 한달전에 위성이 지나갈 자리길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공화국이 최첨단을 돌파한 자기의 위성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담보와 확신이 있었기때문이다.

위성발사가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다는것도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이다.

그래서 벌써 몇십년전부터 위성을 쏘아올렸다고 하는 나라들도 불리한 기상조건하에서는 위성발사를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더구나 눈이 오면 습도가 높아져 위성발사조건이 최대로 나빠진다. 위성발사력사는 겨울철에 위성을 쏴올려 성공한 례가 매우 낮다는것을 기록해왔다. 그래서 적대세력들은 강설이 내리는 때여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가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에는 이미 강설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물질적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여있었다. 학술적으로도 든든하였고 과학기술력량도 든든하였으며 설비들도 그쯘하게 준비되여있었다.

공화국의 《광명성-3》 호 2호기가 발사되던 2012년 12월에도 눈이 많이 내렸다. 위성발사가 진행되던 지방에는 더 많은 눈이 내렸다.

하지만 발사되여 9분 27초만에 자기의 궤도를 우주에 새긴 《광명성-3》 호 2호기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들이 전파를 타고 온 행성에 퍼져나갔다.

진보적인류만이 아니라 적대세력들까지도 공화국의 성공적인 위성발사를 두고 《세계가 조선을 다시 알게 한 사변》이라며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광명성-3》 호 2호기는 강설을 박차고 우주로 솟아올랐을뿐아니라 자리길을 꺾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길을 따라 궤도에 진입하였다. 이것은 최첨단과학기술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그때 세계는 다 알수 없었다. 왜 공화국의 위성이 자리길을 꺾어가면서 궤도에로 진입해야 했는가를.

운반로케트의 2계단을 국제해상통로와 주민지대에 떨구지 않고 공해에 떨구기 위하여 자리길을 꺾어야 했던 사연…

단순히 과학기술적위력의 시위가 아니였다. 위성밑에 있는 나라들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우정 굴곡을 만들어 선회시킨 자리길, 그 자리길을 만드는 유도법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전문가들은 다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위성은 자리길을 꺾어가면서도 자기의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 그것은 위성관제의 고도의 기술수준을 보여준것으로써 우주를 돌파한 조선의 존엄과 담력, 최신과학기술발전의 힘있는 과시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기술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는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하여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우주개발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이다. 권리행사는 그 누가 승인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합법으로 되거나 또 부정한다고 하여 《도발》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앞으로도 공화국에서는 이미 선포된대로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를 향해 련속 날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 영 숙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통일대강

력사적인 10.4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8돐이 되여온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10월 4일은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놓은 6월 15일과 더불어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의의깊은 날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 대통령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온 겨레가 지켜보는 평양상봉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대한 더욱 큰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6.15시대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력사적인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이야말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 조국통일위업을 또 한걸음 크게 전진시킨 불멸의 기치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지나온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며 그에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굳게 련대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이다.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서 겨레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특히 지난 8월에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북과 남이 하루빨리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자각하게 하였다.

최근 북남관계에서는 고위급긴급접촉에서 마련된 합의를 리행하여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려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등 모처럼 화해의 기운이 싹트고있다. 내외여론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환영하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측은 체제대결,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회피하고있다.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동족을 의연 불신하고 적대시하면서 범죄적인 《북인권법》 채택에 매달리고 외세와의 대북압박공조에 혈안이 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이렇게 해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바른 궤도에 들어설수 없으며 모처럼 마련된 합의가 제대로 리행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리행하며 이번 북남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여 화해와 관계개선의 좋은 결실을 이루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개선에로 나아갈 의향이 있다면 분위기를 해치고 대결의 먹구름만 드리우는 체제대결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불멸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리국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5)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펼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외분렬주의세력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핵위협소동, 전쟁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는 한편 《체제통일》 실현의 야망밑에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악랄하게 역행해나섰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나섰을뿐아니라 공화국의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심히 위협해나섰다.

《문민》을 표방한 남조선당국자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하였던 《대통령》 취임연설을 뒤집고 《자유가 없는 통일은 더욱 불안전하며 번영이 없는 통일에는 문제가 더 많다.》는 《통일무용론》을 늘어놓으면서 《남북화해협력》, 《남북련합》, 《1민족 1국가》라는 《3단계통일방안》이라는것을 내놓음으로써 《승공통일》, 《흡수통일》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사태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자주성을 상실하고 민족적립장에 서지 못한다면 북남대화도,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할 보다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한 공화국은 얼마후인 1993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소집에 대한 공보를 발표하였다.

세계는 공화국이 이 회의를 통해 더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할것으로 예상하였다.

서방의 한 통신은 《북조선의 련속적인 타격에 만신창이 된 미국과 불순세력들은 북조선최고인민회의소식을 벼락이 칠 때의 개구리처럼 두눈만 굴리며 공포속에 기다렸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전쟁이냐 평화냐,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엄혹한 시각이였던 1993년 4월 6일 공화국에서는 세계의 예상을 180°로 뒤집어놓으며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대단결의 길을 다시금 온 겨레와 세계앞에 명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울려나오고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대단결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명시하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그리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히고있다.

또한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데 대한 문제,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대단결의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 소속, 거주지역과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단합의 정치대강이며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선포는 전쟁접경에 이른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민족단합의 정신으로 일거에 완화에로 급전시키는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특히 이 강령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표하시여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시고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것처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7천만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이 어린 애국애족의 강령인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민족구원의 위대한 경륜》, 《7천만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래일의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참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민족의 통일숙원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력사적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온 겨레는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을 마중해간 6.15시대의 격동적인 화폭도 목격하였고 북남대결이 첨예화되는 속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최극단의 정세상황도 체험하였다.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통일이 오지만 불신하고 대결하면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을 곡절많은 북남관계는 깨우쳐주고있다.

하기에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있는 오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높뛰는 민족단합의 숭고한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북남합의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최악의 위기상태에서 극적으로 완화와 관계개선의 합의를 이루어낸 때로부터 한달이 넘었다.

그때 당시 북과 남에 조성된 긴장상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했고 누구나 분분초초를 따져가며 닥쳐올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시각에 공화국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민족앞에 드리웠던 위기를 가셔내고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을 위한 좋은 합의를 이룩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조성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온 겨레는 그 어떤 외세도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줄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갈 때만이 관계개선도 진정한 평화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합의리행과정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한 북과 남의 실무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되여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나 북남사이에 좋은 합의가 이룩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이 더디여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때문이다.

합의문발표이후 남조선의 청와대와 관계자들속에서는 《협상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차분하게 대응할것》이라느니, 《일희일비하지 않고 랭정하게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북이 먼저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속도조절론》과 《신중론》을 제창하여 급속한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겨레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들은 합의문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흡수통일》 야망이 가득찬 《통일외교》라는것을 들고나와 북남합의정신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으며 《국회》에서의 《북인권법》 통과를 서두르면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였다.

최근에는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표명에 대해 《10월도발》이니,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이니 하고 계속 떠들어대는가 하면 외교부대변인을 내세워 《북이 도발하면 유엔안보리가 상응조치할것》이니 뭐니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참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이후 오늘까지 남조선당국의 언행을 보면 그들이 과연 합의정신을 존중하는지,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 6.15시대와 같이 북남사이 이룩된 합의가 옳게 리행되여 경이적인 성과를 안아온 좋은 경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합의도 일방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 휴지장이 되여버린 가슴아픈 사실도 있다.

2007년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더불어 마련되였던 10.4선언도 남조선에 출현한 리명박보수 《정권》의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리행이 가로막혔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계속 동족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도 언제 깨여져나갈지 모르며 이 땅에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만이 흐르게 될것이다.

북과 남이 대결하면 좋아할것은 침략적인 외세뿐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민족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북남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계속 살려나가야 하며 이제라도 합의정신에 위반되는 도발행위들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이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를 평화와 통일의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에 부합되는 길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누구의 《인권》을 론할 처지가 되였는가

《북인권개선에 나서야》, 《북인권문제는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북인권개선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되여야》…

이것은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의 입에서 련일 터져나오는 소리이다.

북을 겨냥한 이러한 발언과는 상반되는 말도 있다.

《세계에 진실을 알리고싶다. 이 나라에서는 인권문제나 폭압정치를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비법월경하여 공화국에 억류된 미국대학생 주원문이 얼마전 평양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공화국의 현실을 보지도 못하고 주절거리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발언인가, 아니면 북의 현실을 직접 보고 말한 평범한 미국대학생의 발언일가.

그 답은 구태여 밝히지 않기로 하고 아래에 남조선의 현 인권실태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추석으로 본 남조선민심

추석은 음력으로 8월 대보름날로서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민속명절로 쇠는 날이다.

가을과 함께 맞이하는 이날에 우리 민족은 조상에 대한 례의범절을 표시하고 서로 성의있게 만든 음식을 교환하며 뜨거운 혈육의 정과 후한 인심을 나누어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민속명절마저 불안과 고통, 아픔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길바닥롱성》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서울시청광장근처의 13층짜리 《인권위원회》 건물옥상우에서 롱성을 벌리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로동자 최정명과 한규협,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라고 적힌 프랑카드를 내걸고 하루종일 안전띠에 몸을 맡긴채 벌리는 그들의 롱성은 지난 9월 24일로 107일째라고 한다.

추석명절을 맞는 그들의 말은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것이였다.

거기서 멀지 않은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롱성장이 439일째(지난 9월 25일당시) 설치되여있었다.

《〈세월〉호참사 500일이 지나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아직 〈세월〉호에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다. 아직 우리는 가족들과 즐겁게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마음상태가 아니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롱성장 바로 곁에 있는 지하철도의 역안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웨치는 천막롱성이 1 131일째(지난 9월 25일당시) 벌어지고있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있는 그 롱성자들은 《우리의 작은 요구사항 하나라도 사람들이 귀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에 3년가까이 명절도 없이 롱성을 이어가고있다.》고 하소연한다.

2 278일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본부앞에서 로숙롱성을 이어왔던 재능교육로동자는 《롱성할 땐 명절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팠다. 누군가는 명절때도 남아서 천막을 지켜야 했기때문》이라며 《과거 명절때 주변식당이 문을 닫아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천막을 지켰던 순간들이 생각난다.》고 하소연한다.

기아차 비정규직로동자 최정명은 《로동자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자고 말하는것도 힘든 시대다. 참으로 잔인한 추석이다.》라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 삶의 권리를 위해 투쟁에 나선것은 이들뿐이 아니다.

200여일동안 송전탑과 기중기우에서 롱성을 벌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로동자 강병재, 408일을 굴뚝에서 롱성을 한 《스타케미칼》 해고로동자 차광호를 비롯하여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있다.

수자로 본 남조선의 인권현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최악의 취업난과 장기불황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지난 한해동안 매일 38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명절기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다는것이다.

하루 38명, 1년이면 줄잡아서 1만 3 870명이 자살하는것으로 된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지역이 또 있는가. 남조선 지역의 인구가 얼마인데 한해에 1만 수천명이 자살한다면 이야말로 사람 못살 생지옥이 아닌가.

자살은 남조선에서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된 불치의 난문제이다.

지난 9월 남조선의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자살한 청소년이 1 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해 100~200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고 지난해에도 118명이, 올해에는 8월현재까지 61명이 자살하였다고 한다.

통계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자살의 원인은 첫번째가 경제적어려움이고 그 다음이 가정불화이며 외로움, 취업 등의 순서라고 한다.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값에도 못가는데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불황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것이 서민들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차례진 《잔인한 추석》을 가정과 이웃들과 함께 하는 《풍성한 추석》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 비장한 몸부림이 아닐수 없다.

빚을 내여 빚을 갚아야만 하는 그들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하는것이 귀중한 생명을 끊고 모든것을 잊어버리는 극단적인 자살인것이다.

지난해 마지막집세를 내고 정말 미안하다며 자살의 길을 택한 송파 세모녀자살사건은 남조선사회의 반인권실상을 폭로한 눈물겨운 실례였다.

경제적파국은 매 가정에도 회오리를 일으켜 돈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혈육간, 부부간, 부모자식간에 서로 헤여져 살아야 하는 《리산가족》이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어른들의 악심,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비관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여 식칼을 보면 사람을 찌르고싶은 충동이 저절로 든다는 폭행심리와 스스로 목숨을 끊고싶다는 자살심리가 아이들의 머리속에 굳어지고있다.

이처럼 남녀로소속에 잠재되고 사회적으로 만연된 자살심리와 자살행위로 하여 남조선은 이미 전부터 쓰고있는 《자살 1위》의 《월계관》을 아직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중에는 폭행, 성폭력, 《왕따》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혹행위로 수많은 사병들이 목숨을 끊고있는 남조선군내의 자살자는 포함되지도 않은것이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자살문제를 풀어보려고 《자살예방계획》이라는것을 세우고 원인분석이니, 실태조사니 하며 법석 고아대고있지만 그 원인을 자살자들자신에게 돌리고 몇푼의 사회적지원에서 찾으려고 하고있다.

뼈속까지 곪아들어가는 상처에 외용약이나 바른다고 나을수 없는것이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부자들과 특권층만을 비호하는 반인민적악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에서 피눈물을 닦아낼수 있겠는가.

대결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우에서 본바와 같이 남조선의 인권실상은 너무도 참혹하다.

하지만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거름더미우에 향수를 뿌리고 향기롭다고 하는것처럼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대인 남조선을 《선진화》의 보자기로 가리워놓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만을 운운하고있다.

검은것을 희다고, 흰것을 검다고 우긴다고 곧이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인권은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주적권리이고 모든 가정과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차례지는 인민대중의 권리이다. 또 그것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국권이 참다운 인권이다.

공화국에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떠드는 그 어떤 《인권문제》가 아니라 공화국군대와 인민이 지켜오고 지지하고 행사해가는 자기 식의 진정한 인권, 세계가 따라배워야 할 존엄높은 인권이 존재한다.

남조선계 미국대학생이 말한것처럼 자주의 길로 보무당당히 나가는 공화국에는 그 어떤 《인권문제》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오늘의 북현실을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인권문제》를 떠드는것은 가보지도 못한 별나라가 어떻다고 떠드는 탁상공론에 불과할따름이다.

날과 달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는 그들의 반북 《인권》소동은 낡은 대결악습의 발로이고 천년이 가도 이루지 못할 《흡수통일》의 망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부리는 지랄발광에 지나지 않는다.

동에 닿지도 않는 허튼소리로 동족을 참을수 없게 헐뜯고 불신과 대결을 계속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한 북남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화해,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남조선당국이 《북인권》타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거기에 귀기울일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대결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추한 모습만 더욱 드러내게 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제 얼굴에 흑만 붙이는 어리석고 주제넘는 《북인권》소동을 걷어치우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매일같이 항의롱성을 벌리고 자살의 길로 떨어지는 처참한 제 집안형편이나 들여다보고 대책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탈북자》의 비참한 죽음이 보여주는것은

지난 9월 25일 남조선의 한강에서 40대 《탈북자》가 변사체로 발견되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그가 《〈탈북자〉로서 가족을 북에 남기고 온 죄책감과 생활고에 시달렸던것으로 조사되였다.》고 하면서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좀더 밝혀봐야 안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이번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된 한 《탈북자》의 운명을 통해서도 남조선이 과연 《탈북자》들에게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의 회유기만에 속아 남조선으로 간 한 《탈북자》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남쪽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대북전단〉과 심리전방송을 통해 떠들던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와 환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북에서 굶어본적이 없던 나는 정작 〈한국〉에 와서 굶는 고통을 경험했고 살아남고자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며 궂은 식당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남들이 8시간을 일할 때 12시간을 일했어도 월급은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아가고싶다. 죽어서라도 북에 가고싶다.》

죽어서라도 북에 가고싶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와 차디찬 랭대에 시달리면서 고향을 떠나온 자신들을 저주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형사정책연구원의 《탈북자》조사자료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범죄피해률은 24.3%로 남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의 범죄피해률 4.3%의 5배가 넘고 사기피해률도 남조선에서 나서자란이들의 43배에 달해 《탈북자》 5명중 1명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이들을 타락과 범죄의 길로 떠민것은 생활난이다.

올해 남조선의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도 《〈탈북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한국〉에서 태여난 사람에 비해 더 많은데도 월 평균소득은 그들과 대비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실업률보다 4배넘게 높고 자살률도 3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언제인가 《탈북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남조선에 와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실업은 빈곤과 배고픔을 의미하고 자살은 삶과의 단절을 뜻한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치로 인해 민생이 날로 악화되고있다.

단적인 실례로 이번 민속명절인 추석날에도 남조선의 곳곳에서는 짧게는 100여일, 길게는 1 000여일 걸린다는 《길바닥롱성》이 그칠줄 몰랐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생존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였다.

남조선주민들의 생활이 이러할진대 온갖 차별대우를 받는 《탈북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탈북자》들속에서는 공화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울려나오고있으며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식감으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제3국으로 《탈남》하는 《탈북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강제로 유인랍치되여 남조선에 끌려간 공화국주민 김련희도 기자회견 등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렬한 희망을 거듭 표명하였다.

남조선사회야말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돈없으면 못사는 인간생지옥임을 《탈북자》들은 뼈에 저린 체험을 통하여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돈 잃고, 병 얻고》

남조선잡지 《주간동아》(2015년 9월 21호)는 대학재수험생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글을 실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현재 경기도내 기숙학원비용은 한달평균 220만원~250만원, 3개월마다 20만원의 교재비가 추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직후인 12월부터 11개월동안 등록한다고 치면 총 2 500만원~3 000만원 비용이 든다.

일반 재수(재수험생)종합반학원에 다녀도 1 000만원~2 000만원이 사교육비로 들어간다. 《돈없으면 재수도 못한다.》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다. 일부 재수생이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재수충(蟲)》이라고 비하하는 리유다.…

재수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돈》과 《성적》이다. 둘중 하나가 부족하면 재수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한 남학생은 《1년동안 학원비 1 000만원, 고시원비랑 생활비로 1 000만원 등 총 2 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잃은것은 돈, 얻은것은 병이더군요. 하는수 없이 서울내 하위권 대학에 갔지만 일찍 취업한 친구들을 보고 학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 다시 수능준비를 하고있어요. 비싼 생활비를 감당할수 없어 로량진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고있습니다. …숙식, 빨래를 포함해 한달 80만원~90만원을 내야 해 감당할 엄두가 안나요.》라고 했다.…

경제적여력이 없는 학생은 고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으로 수험생활을 하기도 한다.

늘어가는 재수비용에 부모들은 등골이 휜다. 어느 한 부모는 《학원비를 아무리 아껴도 2 000만원이 들더군요. 이 돈 다 대고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면 은퇴후 먹고살 길이 빠듯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내 나이 예순인데 로후대책 세우는건 꿈도 못꿔요. 그래도 자식이 대학가고싶다는데 지원해주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이 들것 같아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문제는 재수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여유가 있는 서울 강남권 학생들은 타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재수를 선택하는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학생 서울대 쏠림현상》을 유발하고있다.

한 전문가는 《부유한 강남학생들이 국민세금을 받아 서울대에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입시 지옥속에서 재수생들은 1년내내 앓는다.

1년동안 몸과 마음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교육비는 계속 투자되고 재수생들은 단 한번의 시험에 최대에너지를 쏟는다. 그리고 남는것은 대학 4년을 이미 다닌것과 같은 비용과 은퇴를 앞둔 부모의 한숨이다. 불황에도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그렇게 투자한 교육이 앞날을 보장하지도 못하는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본사기자

도발적언행들은 예측할수 없는 화를 불러온다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에 나가면 동족을 물어뜯는 못된 악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현 집권자는 유엔총회에 참가하여 한 《기조연설》이라는데서 《북핵해결》이니, 《북의 추가도발》이 어떻다느니, 《개혁, 개방》이니, 《주민들의 어려움》이니 하며 자극적인 험담들을 많이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제가 《인권의 사도》나 되는듯이 《인권개선촉구》를 역설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체제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야망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것이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고 또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북남합의가 이룩된 이후 그 리행을 요구하는 내외의 목소리에 그 무슨 《속도조절론》 같은것을 들고나오면서 딴죽을 부린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악담을 해대는것만 보아도 그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파연 바라는가 하는 겨레의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해주고있다.

가관은 남조선집권자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나머지 초보적인 리성마저 잃고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얼빠진 소리들을 마구 해댄것이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렀다고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미국의 핵무기이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고 또 인류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웠으며 세계도처에 핵무기를 배비하여놓고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것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핵무기로 지속적으로 위협함으로써 원래 핵이 없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도 바로 미국이라는것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배비하여놓고 끊임없는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긴장시켜놓고있다.

세계평화의 암인 미국상전의 핵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민족수호를 위한 정의의 보검인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걸고드는것은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까지 배여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하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식민지하수인의 치사한 넉두리에 불과하다.

남조선집권자가 그 누구의 《인권》이니, 《주민들의 삶》이니 하며 떠든것자체도 주제넘는짓이 아닐수 없다.

세계가 철폐를 요구하는 악명높은 《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1%만의 부자들을 위한 반인민적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나 생존권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 남조선이다. 생존의 길이 막히고 전망이 암담하여 매일 38명이 자살하는 사람 못살 생지옥이 남조선일진대 제 집안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누구의 《인권》이니, 《주민들의 삶》이니 하고 입만 벌리면 주절대는것이야말로 동족대결의 악습이다. 더우기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조작된 비극적인 날을 유엔이 《축복》 한것처럼 《〈한〉 반도통일을 세계가 축하하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는 잠꼬대같은 나발질까지 서슴지 않은것은 사실상 《체제통일》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으로서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낸다.

체제대결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현 집권자가 체제대결을 공론화한것은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겠다는 것으로서 자멸을 초래하는 얼간망둥이짓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입만 벌리면 동족을 헐뜯고 국제사회에 동족끼리 대결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이러한 추태에 구역질밖에 날것이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물론 모처럼 마련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살얼음장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남조선당국은 운명적인 시각에 도발적언행들이 예측할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사고와 행동 하나하나를 심중하게 해야 한다.

김 응 철

고질적인 악습을 버려야

남조선집권세력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북 10월 도발》설, 《북핵위협》이고 그에 따르는 《국제제재》, 《강력대처》이다.

제 집안에서 쑹얼대는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들에게 귀따갑게 압박공조를 구걸해댄다.

외교부 장관과 6자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한〉 미 일외교장관회담》과 제6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한〉 미6자회담 수석대표회동》 등에서 《북의 추가도발》을 떠들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이 아플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느니, 《외교적으로 더 고립될것》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꺽하면 《도발》이니 뭐니하며 동족을 모함하고 걸고들며 외세와의 그 무슨 《압박공조》에 매달리는것은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나 자위적억제력강화와 관계되는 문제는 그 누가 떠들듯이 《도발》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고 미국의 핵위협에 맞선 자위적인 조치로서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위성발사를 공화국만이 하면 안된다는것도 어불성설이고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압살책동은 날로 가중되는데 미국과 교전관계에 있는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라는것도 스스로 무장해제하여 침략을 고스란히 당하라는것과 같은 강도적인 론리이다. 누가 이따위 궤변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이니, 《제재》니 하는것이야말로 미국의 침략교리를 그대로 되받아 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이 땅을 외세의 전쟁터로 만들려는 쓸개빠진짓이 아닐수 없다. 지금 《10월 도발》설이니 뭐니하고 제일 요란스레 불어대는것은 미국이다. 북과 남이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완화와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기미가 보이자 어떻게 하나 이 흐름을 막고 긴장을 격화시키려고 미국이 고의적으로 더욱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도발》설, 《위협》설이다. 그런데도 외세와 짝자꿍이만 하고있으니 그 버릇 언제면 고쳐지겠는가.

사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대결의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고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이다.

최근에만도 미국과 남조선군부는 제8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라는것을 열고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한 그 무슨 《공동대응》을 모의하였으며 《북의 도발》에 대한 《고강도압박》과 북의 미싸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한다는 이른바 《4D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10월 하순에는 미국의 《F-22랩터》 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하는 핵추진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남조선에 전개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의 유사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18만 8 000명의 미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국전문가들의 보고서발표와 《특수부대》 창설움직임도 조선반도평화의 교란자가 누구인가를 잘 말해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설을 늘어놓으며 외세공조의 역겨운 추태를 부린다면 모처럼 마련한 소중한 북남합의의 리행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덮어놓고 시비중상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민족과 통일을 위한 바른 행동들을 하여야 할것이다.

리 어 금

외곡된 력사교육을 강요하려는 남조선당국에 항의

남조선의 대학교수들과 법학자들이 외곡된 력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에 항의하였다.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9월 22일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당국이 저들이 만든 력사교과서를 내리먹이려는것은 《유신》 독재권력이 력사해석마저 저들의 입맛에 맞게 하던 과거에로의 회귀를 시도하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당국이 력사에 대한 학계의 해석을 부정하고 권력의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력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학계와 교육계 등 그 어디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력사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각계의 반대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세력이 이를 단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해 책임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남조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등 법학연구사들도 9월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되살아난 군국주의일본의 재침망동을 보며

알려진것처럼 지난 9월 19일 일본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자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주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존재가 위협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공격당한것과 꼭같다고 보고 선제공격을 할수 있는 법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근 70년간 형식상이나마 유지하여오던 《평화헌법》을 벗어던지고 침략전쟁의 철갑모를 바꿔쓴것으로 된다.

피비린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재침전쟁의 날개를 펴덕이며 부활한 군국주의, 전범국 일본이 장차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에 또 어떤 화근으로 될것인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택한 일본

세계는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 채택을 군국주의부활로 락인하고있다.

왜서인가.

《안전보장관련법》 채택에 전패국, 전범국의 오명을 씻지 못한 일본의 재침야망이 그대로 반영되여있기때문이다.

그 법안의 채택으로 일본은 아시아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조작하고 지휘하는 《반테로전》, 민족분쟁, 종족분쟁, 종교분쟁, 국제분쟁들에 마음놓고 코를 들이밀수 있게 되였다.

그를 위해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장장비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일본은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수 있는 직승기항공모함 4척을 건조하면서 그 군함들에 과거 해외침략의 선봉에 섰던 군함들의 이름을 뻐젓이 붙이였다.

또한 륙상 《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장거리공격을 위한 수송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배치하였으며 장거리공습을 위한 전투기용정밀유도장치를 구매하고 공중급유기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있다.

지난 8월 26일에 폭로된 일본방위성 내부문건에 의하면 일본은 이미 2013년부터 《자위대》 무력수를 보강하기 위해 《징병제》 도입까지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그런 속에 살통이 난것은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다.

일본군수업체들은 1967년에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자위대》에만 보장하던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해외에로 수출할수 있게 되였으며 무기를 비롯한 군수장비품의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을 정부에 제기하였다고 한다.

또 일본정부는 《자위대》에 있던 기구들을 합치여 수출 및 공동개발, 장비, 기술정보수집, 다른 나라와의 국방기술협력, 장비조달계약 등을 수행하는 방위장비청을 내올것이라고 한다.

가장 엄중한것은 일본의 핵무장화기도이다.

일본은 지난 4월에 미국과 개정한 《방위협력지침》과 이번의 《안전보장관련법》으로 미군에 대한 군수물자조달을 하게 되였는데 그 《탄약》에는 미국의 핵무기도 포함될수 있다는것이다.

그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일본방위상은 《핵무기운반도 법조문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하였으며 법제국 장관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된다는것은 없다.》고 하면서 저들의 핵무장화기도를 정당화하였다.

일본이 지난 세기 히로시마에 떨군 원자폭탄과 같은 핵무기를 8 000개이상 만들어낼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순간에 핵무기보유대국으로 둔갑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주먹이 강해야 배짱이 생긴다

재침의 칼을 추겨든 일본이 노리는 첫 대상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이고 우리 민족이다.

저들이 과거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조선침략과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해나서고 력사교과서를 외곡기술하며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대의 성노리개로 삼아 육체와 정조를 깡그리 유린하고서도 《매춘부》니 뭐니하며 저들의 국가적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일본.

패망 70년이 된 오늘도 침략의 과거를 털끌만큼도 반성하지 않고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에 뛰여드는 그 일본에게 있어서 인륜도덕과 량심이라는것은 통하지 않는다.

일본의 속에 꿈틀거리는것은 오직 하나 침략의 과거를 재현하는것이다. 이제 일본의 재침은 시간문제일따름이다. 세계의 정직한 량심, 일본에게 재난을 당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보고있다.

현실은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에 맞서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의 군력을 억척같이 다져놓은것이 얼마나 정당한 애국의 조치였는가 하는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어제도 그러하지만 오늘날에도 외세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무슨 외세의 존이나 막연한 평화호소가 아니라 자기의 힘밖에 없다.

110년전 화승대밖에 없는 약소한 군력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맨주먹으로 눈물을 씻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돌아보는 피눈물의 과거에서 찾은 교훈은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을 지킬수 없고 망국의 수난을 당해야 한다는것이 아니였던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이 손에서 핵을 놓으라고 집요하게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의 압력에 겁을 먹고 조선군대 해산이라는 국왕의 《조칙》을 날조했던 을사오적들의 망국행위보다 더한것이며 민족수호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무력화하고 우리 겨레에게 외세의 《핵우산》 밑에서 굴종의 서식을 설교하려는 현대판 《민족개량주의》와 같은 매국행위이다.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가진 지금의 우리 민족은 한세기이전의 약소민족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수 있는 담력과 배짱을 가진 담대한 민족이다.

주먹이 강하면 배짱이 든든한것처럼 공화국에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외세의 간섭을 물리칠수 있는 힘과 능력, 배짱과 의지가 있다.

외세의 함포소리에 아래다리를 떨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 어쩌니저쩌니 한다고 하여 민족수호의 보검을 버릴수는 없다.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벼리여야 할 때이다.

침략적인 미국은 물론이고 전쟁국가로 고개를 쳐든 백년숙적 일본이 덤벼든다면 과거와는 대비도 안되게 단매에 철저히 짓뭉개버리기 위해서다.

온 겨레는 무분별하게 날뛰는 일본군국주의에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하며 외세에 아부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사대매국세력의 범죄적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신 기 복

내가 본 평양

나는 한생을 두고 북을 좋지 않게 보았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비록 아버지고향이 청진이고 어머니도 함흥태생이지만 나서 자란 곳이 이남이고 지금 살고있는 곳이 서방이여서 그런지 나에게 있어서 북은 생소하고 《어두운 나라》였다.

어릴 때부터 북주민들은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온통 붉은색인 《빨갱이악마》라는 선전속에 살아왔고 지금에 와서는 《기아》와 《빈궁》, 《공포》와 《압박》으로 인하여 《인권사각지대》라는 서방의 언론공세속에 살고있는 내가 북의 진실을 알수 없었던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러던 내가 북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 동기가 있다. 그것은 사업차로 자주 다니는 이남에 갔다가 우연히 이미 전부터 면목이 있는 같은 재미동포인 신은미의 《통일콘서트》에 참가해서부터였다.

그때 신은미씨는 《나는 보수주의자다. 집안자체가 보수적이여서 어렸을 때부터 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곳은 얼굴이 빨갛고, 호전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남편과 함께 순수하게 려행을 간것이였다.》라며 자신의 방북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다녀온 북에 대해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였다. 평양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재잘거리며 뛰여다니고, 출근길에 지하철은 붐비고, 다른 나라처럼 교회에서 례배도 드리는 그런 곳이였다. 북은 그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있는 평범한 나라〉였을뿐이였다.》라고 자신심을 가지고 말하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호기심을 품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침침한 사회》라는 서방의 선전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있는 평범한 나라》라는 그의 말에서 심리적갈등이 시작됐다.

과연 어느것이 진실일것인가?

나는 이 의문을 풀고저 거북스럽지만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들의 태가 묻힌 곳이자 고국인 평양에로의 《탐방길》을 떠났다.

값을 모르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북에 대한 나의 표상은 서방언론들이 귀따갑게 외워댄 《기아》와 《빈궁》 그자체였다. 비행기안에서 쇠진한 몸을 의자등받이에 기댄채 나는 머리속으로 상상해보았다. 거리를 《방황》하고있을 주민들과 《공포》와 《압박》으로 《어둡고 침침한 그늘》속에 놓여있는 북의 거리와 마을들을.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내 눈앞에 펼쳐진것은 한순간에 내 자신을 방황케 하였다.

나의 예상을 뒤집고 눈이 부시게 시원히 뻗어간 활주로에 민족적미감과 현대적미감이 조화롭게 결합되여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보이는 평양국제비행장의 모습이 안겨왔기 때문이였다.

차창밖에 흘러가는 평양의 거리와 마을들에는 생의 활력과 랑만에 넘쳐 자그마한 구김새도 없이 활보하는 북주민들의 모습이 비껴왔다.

북에서 창전거리라 일컫는 초고층호화주택구역의 어느 한 집을 찾았을 때 그 집 주부가 하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예? 집값이요? 우린 집값이라는것을 모른답니다.》

믿어지지 않았다. 이만한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집값도, 세금도 모르고 살다니?

알고보니 그 집 세대주는 평양양말공장 현장기사였고 내가 만났던 주부도 어느 한 공장의 로동자였다. 갈피를 못잡는 나에게 그 녀인은 사연을 알겠다는듯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었답니다. 남편이 일을 잘한다고… 세월이 좋고 시책이 좋으니 걱정없이 살아요. 우린 행복하답니다.》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다. 서방에서는 죽기 전에 제 집 하나 쓰고 사는것이 필생의 소원으로 간주되고있다. 설사 집이 있다고 해도 전기세, 수도세, 토지세를 비롯한 수십종이 넘는 엄청난 값의 가렴잡세로 인하여 인차 자리를 털고 한지에 나앉는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다. 오죽하였으면 언제인가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한 이남의 한 선수가 1등을 한 후 자신에게 밀려든 기자들의 마이크앞에서 《어머니, 이젠 우리에게도 집이 생기게 됐어요!》라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리쳤겠는가.

레온등이 눈부시고 눈뿌리를 빼도록 소스라치게 솟아오른 서방의 빌딩들안에 과연 제집이라고 쓰고 사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겠는지? 아마도 그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리밑이나 지하철도, 지하보도 등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만나본 북주민은 집걱정은 고사하고 집값조차 모르고 사는것이였다.

그것뿐이 아니였다.

서방에서는 병이 나면 저축했던 돈으로 관을 사두라는 말이 례사롭게 통한다.

왜, 그만큼 치료비가 엄청나기때문이다.

실례로 내가 살고있는 미국에서의 보통입원비는 5 760US$, 일반피검사는 150US$, 충수염수술은 1만 500US$, 심장수술은 3만US$, 구급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는 10만~20만US$의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치료비가 이렇게 엄청나니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내고있으며 병이 나면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북에서는 례외였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방문한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유선종양연구소에 있는 첨단의료설비들은 의료설비가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도 얼마 없는 최신식의료설비였다.

때문에 이런 의료설비로 치료를 받자면 그 값이 너무도 엄청나 서방의 돈많은 부자들도 선듯 주저하는것이다.

그러나 북의 녀성들은 설비 하나값만 해도 고급승용차 몇십대값과 맞먹는 값비싼 의료설비들을 무상으로 리용하고있으며 그러면서도 그 값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있는 것이였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나와 동행한 안내원선생도 자식들이 받아안는 새 교복과 학용품의 값이 얼마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으며 더우기는 대학에 입학한 맏아들이 《등록금》은 고사하고 도리여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참 수수께끼같은 나라였다.

서방세계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다. 고고성을 터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고지서를 달고다녀야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행한 인간들의 처지가 여기에 함축되여있다.

단편적인 실례로 내가 살고있는 미국에는 국민들의 혈세를 짜내기 위한 별의별 법안들이 수없이 많다.

못생긴 말을 타고 거리에 나다니면 위법이고 역한 파냄새를 풍기는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갈수 없으며 개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개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 벌금형을 주거나 구속하는것이 미국의 법률이다.

여기에다 려송연세, 비만세와 같은 웃지 못할 세금조항들까지 새로 등장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걸으로는 번쩍거려도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해주지 못하고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생명은 있어도 생존권을 상실한 인간로보트, 현대판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그런데 이북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말은 잘 몰라도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은 물론 교육과 보건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으니 지난날 사람들이 그려보던 《유토피아》가 아닐수 없다.

그늘을 모르는 나라

북에 있는 기간 나는 단 한번도 서방에서는 초를 다투며 일어나는 살인, 강간, 강탈과 같은 범죄행위는 물론 그 어떤 소요에 대하여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더우기 서방에서 매일이다싶이 일어나는 그 무슨 시위나 집회는 물론 반국가적테로행위가 있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다.

참으로 청신하고 정돈된 사회라는 감각이 나의 온몸을 휘여감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당히 《기니스기록집》에 올라야 할 특이한 정치적 안정을 이룬 나라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본 북녘사람들은 하나같이 락천적이고 활기에 넘쳐있었다.

서방세계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어둡고 침침한 곳》이란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고 《기아》와 《빈궁》, 《폭력》으로 《비관》과 《타락》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더 없었다.

서방의 언론들이 그처럼 인이 배기도록 떠들어댄 북의 《렬악한 인권상황》이란 도무지 찾아볼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인권의 천국에 온 느낌만이 더해갔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은 나는 이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아이들의 보육과 지능계발, 체력단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여있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들로 꾸려져있었다. 이곳을 돌아보는 나는 마치도 선동들이 살고있는 동화속의 하늘나라에 들어선 느낌이였다.

더우기 서방세계에서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누구에게나 버림받는 존재로 되는 이 어린이들이 그 누구도 꾸밀수도, 가공할수도 없는 맑은 눈동자에 함뿍 기쁨을 담고 부르는 노래소리는 나의 심금을 울리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흔히 사람들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한다.

나는 얼마전에 보았던 이남의 잡지에 실린 글이 생각났다.

《도의가 땅에 떨어져 자식이 어머니를 총살하고 정숙한 부인이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땐스홀에서 란무하고 학생이 선생을 구타하고 사기와 모략이 처세술이 되고 자살은 뉴스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말았다. …현대인은 어떻게 사는것이 옳바른 삶인지 몰라서 방황하며 초조와 불안속에서 허덕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였다.》

이남뿐이 아니다. 내가 살고있는 서방세계도 항시적인 불안과 위구속에 살아가야 하는, 부패와 타락이 란무하는 인간생지옥이다.

《자유의 녀신상》은 오늘도 《지쳐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라.》고 설교하고있지만 그 녀신상이 딛고있는 대돌밑에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 가난과 기아, 살인, 강탈, 강간과 같은 각종 범죄와 테로행위에 시달리며 신음하고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살고있는 《인권표본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인것이다.

비교해보았다. 북과 이남을, 북과 미국을 아니 북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비해보았다.

과연 어디가 《기아》와 《빈궁》으로 신음하고 《폭력》과 《강권》,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가고있는가를 말이다.

나는 단 한점의 그늘도 없는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그들의 미래와 북사회의 진모를 보았다.

참으로 북은 그늘을 모르는 밝음의 나라였다.

인권천국을 만든 인덕정치

놀라움과 의문으로 가득찬 나의 거동을 보며 안내원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은 조국방문이 처음이니 아마 모를것입니다.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할가. 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가 낳은 숭고한 화폭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하시였다, 인간의 생명과 복리를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오신 수령님들께서는 나라가 손해를 보아도 인민을 위한 일에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실시하시였으며 세금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시였다, 수령님들의 인덕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고 수수천년 이 나라 백성들이 꿈꾸어오던 인민의 리상촌을 꾸리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북에서 펼쳐지는 인덕정치에 대해 현실을 통하여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부르죠아정치가들은 정치의 의미를 술책을 론하는것으로 내놓고 말하고있다. 하기에 서방정치학자들은 《지배권력은 정치의 본질》이라고 력설했고 영국의 처칠은 《정치는 국민이 감동할수 있는 고도의 사기》라고 그 사이비철학의 리면을 제나름대로 파헤쳤다.

로베스삐에르의 《덕행의 정치》도, 옥타비아누스의 《시민정치》도, 칸르의 《계몽된 군주정치》도,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치》와 링컨의 《신의 정치》도, 묵자의 《겸애정치》도 결국 권력은 강자의 의사를 조건화하는 힘의 관계라고 제창한 고전정치학설의 변종에 불과한것이다.

여기에 비한 북의 인덕정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이 복무하고 복종하는 사랑의 정치, 인덕의 정치이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의 정치인것이다.

이런 인민사랑의 인덕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인민의 락원, 현실속의 무릉도원을 두고 서방의 언론들이 북의 《인권》에 대하여 목이 터지도록 고아대고있는것이 참으로 가소로웠다.

진짜 인권말살지역은 미국과 이남이였다.

인간에게는 사물현상을 보고 듣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북의 이러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있으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하고있다.

대동강물이 맑고 대동강맥주가 맛이 있다고 자기가 본것, 느낀것을 그대로 말했다고 해서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킨 이남은 말할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동포들의 모임이나 글에 대하여서는 언론에 게재조차 못하게 하고있으며 반북성격의 사기극들만이 특종뉴스로 취급되고있다.

더우기 북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주한 《탈북자》들의 가짜《증언》을 근거로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이 유엔무대에서 공공연히 채택되고있는것은 참으로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행성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금도 서방의 어용나팔수들은 남의 땅을 침략하면서도 그것을 《자유수호》, 《테로근절》이라고 뻔뻔스럽게 지껄이고 부패와 타락이 횡행하는 인간생지옥을 《번영하는 자유세계》라고 자랑하고있다.

글을 마치며 나는 세계의 량심앞에 이렇게 말하고싶다.

북의 인권을 알려거든 서방의 거짓선전에 귀를 막고 북에 가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인권의 《지옥》이 아닌 참다운 천국을 보게 될것이다.

재미동포 권대혁

날을 따라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

호평받는 《옥류》 전자상업봉사체계

최근 공화국의 인민봉사총국에서 콤퓨터망과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상품소개와 판매, 상업정보소개를 진행하는 전자결제방식의 상업봉사체계 《옥류》를 새로 도입하였다.

《옥류》 전자상업봉사체계는 사람들이 상점에 가지 않고 콤퓨터망이나 손전화기로 요구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구입하는 체계이다.

정정환 인민봉사총국 국장에 의하면 《옥류》 전자상업봉사체계는 평양양말공장, 선흥식료공장 등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인기제품목록들과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 평양목란비데오상점, 장경묘향상점, 해당화관, 창전해맞이식당을 비롯한 유명한 상점, 식당들의 상품목록들, 갖가지 료리들 그리고 지방상점들에 있는 상품자료들을 상세히 알려준다고 한다.

이 봉사체계는 주민들이 해당 단위들과 련계하여 보다 질좋은 상품들을 손쉽게 눅은 가격으로 봉사받을수 있다. 구입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통보하고 전자카드로 금액을 지불한다. 그리고 상품송달을 요구할수도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가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한편 상품을 생산하는 단위들에서는 원가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 활발해지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리영식부원은 《구태여 상점에 가보지 않고도 사무실에 앉아 콤퓨터망을 리용하여 지방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검색하고 구입할수 있으니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1동에 살고있는 한명숙주민은 손전화기로 장경묘향상점에서 판매하는 액정TV를 구입하여 송달봉사를 요구하였는데 아닌게아니라 약속된 시간에 상품이 집앞에 와닿았다며 사회주의문명국이 눈앞에 펼쳐지는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70돐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1)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당이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창립의 휘황한 설계도

강의날자: 1) 주체104(2015)년 10월 9일
2) 주체104(2015)년 10월 9일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홈페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평안도살림집

평양민속공원 민속촌구에서는 평안도의 주택생활풍습을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 이름을 남긴 김응서가 살던 집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평안도 룡강출신인 김응서는 이러한 집에서 살면서 20살에 무과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김응서는 그후 리진권관과 고산진병마첨절제사도 지냈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초기에는 별장, 방어사로 활동하였으며 그해 7월에는 평양성에 기여들어 략탈과 파괴를 일삼던 왜적을 몰아내기 위하여 룡강, 강서를 비롯한 평양주변에서 일떠선 인민들을 집결시켜 전투부대를 편성하고 용감히 싸웠다. 김응서는 1593년 1월 성안의 왜적을 격멸하고 성을 회복하는 전투에서도 선봉장으로 잘 싸웠다고 한다.

평안도살림집은 日자형의 주택형식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건물이 트인 형식으로 되여있었다. 한마디로 몸채와 안채가 평형되게 가지런히 마주서있는 형식인데 중대문을 지나면 또 그렇게 ㄷ자형의 앞채가 마주하고있다.

좌우측공간은 기와얹은 담이 집벽을 련결하고있다. 대문간과 잇달린 량쪽켠에는 마구간과 사랑채가 있다.

마당을 지나 또 바깥채의 대문에 들어서면 한쪽켠에는 손님방이 있으며 그앞에 있는 대문을 지나면 안주인이 생활하는 안채가 있다. 부엌은 건물의 한쪽끝에 배치되여있고 부엌과 아래방사이에는 서북부지방특유의 살림집꾸밈형식인 새문을 해달았다.

평양민속공원에서 우리는 애국명장 김응서가 살던 살림집형식을 통하여 평안도지방 인민들의 주택생활풍습의 일면을 엿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중세에 사용된 고리자루긴칼

유모아

고리자루긴칼은 세나라시기에 쓰던 자루끝이 고리로 되여있는 긴칼이다. 고구려에서는 현재 평양시 평천구역과 자강도 자성군 송암리무덤떼, 백제에서는 현재 전라남도 라주시 독무덤, 충청남도 공주시 송산리무덤, 신라에서는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황남리무덤떼 등에서 발굴되였다.

고리자루긴칼은 거의 공통하며 차이가 별로 없다. 칼몸의 형식은 다 같이 외날칼과 쌍날칼이며 칼의 대부분은 날이 곧으나 뒤로 약간 휜것도 있다. 고구려칼은 칼몸의 예리한 선조미와 상어가죽으로 장식한 칼자루의 세공도 볼만 하지만 등근 고리형태로 된 칼자루끝은 더 훌륭하다.

민고리자루긴칼은 3~4세기, 세고리 및 룡고리자루긴칼은 4세기말~5세기, 세잎고리자루긴칼은 5세기 중엽~5세기말에 해당된다.

민고리자루긴칼은 고리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하며 큰 둥근고리로 되여있는데 날이 길다. 고구려벽화에 그려진 칼은 례외없이 민고리자루긴칼이며 이런 칼은 백제와 신라의 무덤에서도 나왔다.

룡고리자루긴칼은 고리안에 룡의 형상이 있는데 룡을 하나 새긴것과 둘 새긴것이 있다. 룡고리자루긴칼은 금, 은, 보석 등을 많이 써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세잎고리자루긴칼은 고리안에 세 잎사귀의 형상을 한것이다. 칼자루의 겉면에 물결무늬를 찍어낸 은판, 금동판을 씌운것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비늘무늬의 상어가죽을 씌운것이 있다. 고리자루긴칼에는 중세 우리 민족의 높은 공예술과 당시의 풍습이 잘 반영되여있다.

홍성봉

어디에 쓸모있는가

옛날에 두명의 관리가 길을 가고있는데 한 농민이 따라왔다. 해빛이 너무나도 뜨겁게 내리쪼여 땅은 마치 불덩어리와 같았다.

한 관리는 양산을 펴들고 다른 관리는 부채를 부치였지만 농민은 손에 든것이 아무것도 없어 뙤약볕을 맞으며 걸었다.

양산을 든 관리가 일부러 놀려대기 시작했다.

《양산은 펴면 크고 접으면 작고 비오는 날에는 쓸모가 많고 개인날에는 쓸모가 적소.》

부채를 부치던 관리도 그를 따라 말하였다.

《부채는 펴면 크고 접으면 작고 더운날에는 쓸모가 많고 추운날에는 쓸모가 적소.》

그러자 농민이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백성들앞에서는 크고 고관앞에서는 작소. 날마다 배를 불리우는 밥은 많고 날마다 일하는것은 적소.》

그 말에 두명의 관리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말도 못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홍산이야기 (3)

글 강덕부, 그림 김윤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말이겠다?》

틀림없이 전갈을 띄웠겠지?》

《예. 틀림없이…》

그때 나무울타리의 틈사이로 마당에 나오는 환웅의 모습이 언뜻 보이였다.

《아버님, 제가 왔소이다. 소자가 왔소이다.》

단군이 소리쳤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이 대문이 반도 안되게 조금 열리더니 한 군사가 나와 차돌이만 들어오란다는 환웅의 령을 전하는것이였다.

《?!》

어인 영문인지 알수 없었으나 령대로 할수밖에 없어 차돌이만 안으로 들어가고 단군은 밖에 그냥 망연히 서있었다. 울안에서 차돌이에게 묻는 아버지의 엄엄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찌 벌써 돌아왔느냐?》

《…》

《무술을 닦을대로 다 닦았다고 해서 돌아왔겠다?》

《그렇소이다.》

《그러니 자신있다는 무술시험이였다.

단군은 칼자루를 단단히 틀어잡고 대문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대신 환웅이 오른손을 아래로 힘있게 내리긋자 후드득 소리가 나며 열마리의 매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것이였다.

《앗!》

대문만 지켜보고있던 단군은 황황히 활을 벗겨 화살을 메우고 매를 쏘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셋, 날아가는 화살마다에 솟구쳐오르던 매들이 한마리씩 툴렁툴렁 내리떨어졌다. 그러나 다섯마리의 매를 쏴떨구었을 때쯤에는 나머지 매들이 화살이 미치지 못할 먼곳으로 이미 날아가버린 뒤였다.

《아, 놓쳤구나!》

단군은 말에 채찍을 안겼다. 살같이 내달리는 말우에서 날아가는 매를 따라가며 두마리 더 쏴떨구었으나 세마리는 종시 주위의 숲속에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단군이 대문앞으로 돌아오자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찌 되였느냐?》

시중들던 군사가 반색을 띠며 아뢰였다.

《일곱마리가 떨어졌소이다. 이건 참으로 대단한 궁술이옵니다.》

《그래 나머지 세마리는 매가 아니라더냐?》

《…》

《음!-》

환웅의 입가에 깊은 주름살이 잡힐수록 옆에 꿇어앉은 차돌의 얼굴도 점점 흙빛으로 변해갔다. 잠시후 환웅의 거센 목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계속하라!》

그러자 이번에야 대문이 활짝 열리였다. 안에서는 토끼며 노루, 여우, 등 짐승무리들이 와르르 쏟아져나왔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주변의 숲속으로 죽을 힘을 다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단군도 준비를 하고있었으므로 여기에 인차 대응할수가 있었다. 그는 말을 달리며 활을 쏘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달리는 놈은 창을 날려 땅에 못박아놓기도 하였다. 하여 얼마후에는 숲가까이에 이른 노루 한마리만 남게 되였다.

단군이 활을 메우려는 순간 노루라는 놈이 갑자기 방향을 홱 바꾸어 그에게로 마주 달려오는것이였다. 이 어찌된 일인가?! 저놈이 혼이 빠진게 아닐가!

리유는 곧 밝혀졌다. 숲속에서 온몸에 시꺼먼 줄이 죽죽 간 호랑이가 뛰여나온것이였다. 노루는 호랑이보다는 사람이 덜 무서운듯 단군을 향하여 달려오고있었다. 노루같은 짐승도 사람에게는 인정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는지… 호랑이는 그뒤를 길다란 허리를 굽혔다폈다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놈의 걸음은 얼핏 보기에는 느려보였으나 노루보다 훨씬 더 빨랐다. 노루의 일여덟걸음을 호랑이는 한달음으로 주름잡으며 따르고있었다.

이제 세번쯤만 더 몸을 날리면 노루를 덮칠판이였다. 단군을 마주 향해 달려오는 노루의 두눈은 죽음을 느낀 공포와 함께 애원으로 가득차있었다.

《으-응!》

단군은 만궁으로 당겨진 활시위줄을 힘껏 놓았다. 휘—익! 화살은 호랑이의 쩍 벌어진 가슴팍에 면바로 들어박혔다.

《따웅!-》

성난 호랑이는 노루를 버려둔채 화살을 박은 몸으로 단군에게로 달려들었다.

울안에서 울리는 어머니와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단군에게는 들릴리 만무였다. 이제는 화살이나 창이 한개도 없었다. 단군은 말에서 뛰여내렸다. 호랑이는 휙- 날면서 달려들었다. 미처 칼을 뽑을 사이도 없는지라 단군은 내려덮치는 호랑이의 절구통같은 발통을 피하며 주먹으로 놈의 면상을 힘껏 후려갈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의 코잔등이 산산이 부서져나갈듯 했으나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비틀비틀하면서도 휙 돌아서서 다시 달려들려고 호랑이가 몸을 구부리는 순간 단군은 뽑아든 칼을 휘-익 내뿌렸다. 호랑이의 쩍 벌린 아가리로 칼은 날아들어가 깊숙이 꽂혔다.

쿵- 하고 호랑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털썩 자빠졌다. 살아남은 노루는 이미 숲변두리에 이르러 생명의 은인을 다시한번 돌아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단군은 호랑이의 아가리에서 칼을 뽑아들고 천천히 대문가로 걸음을 옮기였다. 울안에서 법석 떠들어대는 군사들의 높은 목소리가 환호성처럼 울려나왔다.

《소장군이 호랑이를 잡았나이다.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찔러 잡았소이다.》

《뭇짐승들이 어찌 되였는지는 왜 아뢰지 않느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